

‘탈북자’ 소재를 활용한 ‘김정은 수령형상’

단편소설의 특성 고찰

—김하늘의 「들꽃의 서정」론

오 태 호*

요약

이 글은 2014년 『조선문학』에 발표된 김하늘의 단편소설 『들꽃의 서정』을 중심으로 북한문학에서의 ‘탈북자 소재’를 활용한 ‘김정은 수령형상’ 단편소설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 작품은 북한 소설 중 최초로 ‘탈북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탈북 여성’의 ‘재입북’ 문제를 중심으로 ‘배반과 용서, 상처와 치유, 사랑과 믿음’ 등 구체적인 북한의 당문학적 입장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특히 이 작품은 김정은을 ‘경애하는 지도자’로 내세운 수령형상문학의 첫 번째 단편소설집인 『불의 약속』(2014)에도 수록되어 있어, 북한 문학의 현재적 표정을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징후적 독해’의 대상이 된다.

‘탈북 문학’은 2010년대 이래로 남한에서 출판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분단 체제에서의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개인의 정체성에서부터 초국경시대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을 매개로 이주와 난민, 인권 문제에 대해서까지 논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적이 없는 북한 단편소설에 드러난 탈북 소재 소설의 이질적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남북한 문학의 차이를 전면화함으로써 이질화된 분단 체제의 모순적 양상을 가시화하고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 애국주의’의 표방 속에 김정일의 인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면서 ‘김정일의 광폭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있으며, 조국을 배반했던 탈북 여성을 북한 인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 있는 ‘인민 사랑의 지도자’로 형상

*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화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전지전능한 해결사로서 무오류적 수령의 형상화 원칙과는 다르게 김정일의 심리적 번민과 갈등이 작품 곳곳에서 서사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 수령형상문학의 문학적 새로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최근 김정은 시대의 수령형상문학에서 드러나는 지도자의 심리적 번민과 갈등은 서사의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면서 무오류와 무갈등의 서사를 넘어 남북한 북한의 점이지대를 확장하는 리얼리즘적 외연으로서의 공통분모를 확인하게 한다. 남한에서의 ‘탈북문학’이 탈북자 정체성과 더불어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을 보여준다면 북한에서의 ‘탈북 문학’은 철저히 ‘수령의 지도력’을 강조하는 수령형상문학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남북한의 문학적 접촉을 통한 이질성 극복의 개진 역시 현재진행형으로 필요한 작업임을 확인하게 한다.

주제어: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 탈북 소재 소설, 김하늘의 『들꽃의 서정』, 북한문학의 새로움, 광폭정치, 김정일 애국주의, 수령형상문학

1. 서론 - ‘김정일 애국주의’의 강조
2. 김정일의 내적 갈등 - 상반된 두 여인의 형상
3. 광폭정치의 본질과 현상 - 배반과 용서 사이
4. 인민에 대한 신심(信心) - 들꽃과 모성의 동일시
5. 결론

1. 서론 - ‘김정일 애국주의’의 강조

이 글은 『조선문학』 2014년 1월호에 발표된 김하늘의 단편소설 『들꽃의 서정』을 중심으로 북한문학에서 ‘탈북자’¹⁾를 소재로 활용한 ‘김정은 수

1) 북한 지역을 이탈하여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은 탈북자, 새터민,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불리

령형상’ 단편소설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한 편의 단편소설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 작품이 2012년 이래로 김정은 시대에 북한에서 발표된 소설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탈북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탈북 여성’의 ‘재입북’ 문제를 중심으로 ‘배반과 용서, 상처와 치유, 사랑과 믿음’ 등 구체적인 북한의 입장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특히 이 작품은 김정은을 ‘경애하는 지도자’로 내세운 수령형상문학의 첫 번째 단편소설집인 『불의 약속』(2014)에도 수록되어 있어, 북한 문학의 현재적 표상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들꽃의 서정』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수령형상문학’이 보여준 ‘무오류적 존재’라는 특징과는 다른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수령형상의 문학적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북한에서는 감추고 싶은 치부를 보여주는 ‘탈북 문제’를 ‘탈북민의 재입북 수용’이라는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넘어서려는 정치적 지향 역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한 분석이 필요한 작품이다.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김정은 정권 초기에 김정은의 지도력을 안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문학적 텍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유입되고 있는 ‘탈북민’의 증대와 함께 ‘탈북 관련 소설’²⁾은 상당히 많이 누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연구 역

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라는 명칭이 북한을 탈출하여 제3세계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을 개별적으로 일반화한 명칭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탈북자 소설’이라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의 고심이 담긴 명칭을 수용함과 함께 북한 작품인 『들꽃의 서정』에서 ‘탈북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 쓰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여 ‘북한 이탈주민’을 ‘탈북자로 명명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탈북 문학은 초기에는 남한의 전문 작가 중심으로 소재적으로 차용되어 창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탈북을 체험한 작가의 자전적 서사로 이야기가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박덕규, 『고양이 살리기』(2004) / 김영하, 『빛의 제국』(2006) / 정철훈, 『인간의 약보』(2006) / 강영숙, 『리나』(2006) / 황석영, 『바리테기』(2007) / 권리, 『왼손잡이 미스터 리』(2007) / 이호림, 『이매, 길을 묻다』(2008) / 정도상, 『절레꽃』(2008) / 이대환, 『큰돈과 큰돈』(2008) /

시 상당히 많이 축적된 바 있다. 특히 ‘탈북자 문학’은 ‘탈경계의 상상력’ 속에서 난민이나 이주의 문제와 함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국민 국가의 경계를 다시 사유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 문학에 대한 연구는 한 반도의 분단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사회와 탈북자의 인권 문제, 여성 문제, 정치범 수용소,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탈북 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주제의식 등을 표출하면서 분단현실의 특수성과 함께 소수자 인권 문제라는 보편성을 함께 주목하게 한다. ‘탈북’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4년 북한 별목공 3명이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탈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 이래로 전세계로 확산된 탈북민의 숫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2017년 현재 3만 명이 넘는 한국 정착민이 있다는 집계³⁾는 ‘탈북 문제’가 더 이상 예외적 소수자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분단 극복 문제의 일환으로 탈북자 관련 문제를 함께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00년대 이래로 탈북문학 연구는 거칠게 요약하자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탈북 여성의 고난과 인권을 중심으로 남한 사회의 적응과 관련하여 자본주의적 모순에 대한 성찰을 심화한 연구, 둘째로 탈북자 개인의 정체성과 디아스포라적 탈국경 문제를 검토한 연구, 셋째로 탈북자 작가들이 자신의 사적 체험을 문학화한 텍스트에 대한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탈북 여성과 자본주의적 모순 문제를 다룬 논문 중 홍용희⁴⁾는 탈

이용준, 『국가의 사생활』(2009) / 전성태, 『강을 건너는 사람들』(2009)과 『로동신문』(2015) / 강희진, 『유령』(2011)과 『포피』(2015) / 조혜진, 『로기완을 만났다』(2011) / 윤정은, 『오래된 약속』(2012) / 김유경, 『청춘연가』(2012) / 장혜성, 『두만강』(2013) / 반디, 『고발』(20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 통일부 국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7년 9월말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1,093명이며, 2017년 입국인원은 881명으로 전년 동기(1,036명) 대비 14.9% 감소하였으나, 2015년 동기(854명) 대비 3.1% 증가하였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입국 인원은 연 1,200~1,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일부,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7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2017. 10. 13, 12면.)

북자 문제가 위기의 북한체제, 남한 사회의 시장지상주의와 소수자 문제, 통일시대의 가능성, 동북아의 국제질서와 인권문제, 세계의 제국주의적 자본질서 등을 가로지르는 문제적 사건임을 주목한다. 이성희⁴⁾는 탈북자 소설이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시대를 맞이하려는 시기에 자본주의적 문제점을 성찰하게 한다고 분석하며, 탈북자의 타자정체성을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면서 여성 탈북자가 한국문학의 소수자 담론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김인경⁵⁾은 탈북자 소설이 분단현실의 재현 속에서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적 모순과 타자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현실 적응과 다른 세계의 탐색을 욕망하게 한다고 분석한다. 이지은⁶⁾은 탈북 여성이 자본주의에 노출되는 과정과 인신매매를 당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성매매 노동에 종사함으로써 상품과 화폐의 교환 구조 속에 놓인 ‘상품화된 존재’의 문제를 추적한다.

둘째로 탈북자의 정체성과 디아스포라적 문제에 대한 연구 중 고인환⁸⁾은 기존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향을 ‘분단 체제와 탈국경의 상상력’으로 구분하면서 탈북자 문제가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장되었으며, 디아스포라적 이주와 연대의 문제임을 분석한다. 김효석⁹⁾은 탈북자 소설

4)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정도상의 『짚레꽃』, 이대환의 『큰돈과 콘돔』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4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12, 377-396면.

5)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박덕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1집, 2009. 4, 261-288면. / 이성희, 『탈북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남한 정착과정의 타자정체성연구-이대환의 『큰돈과 콘돔』과 정도상의 『짚레꽃』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3. 6, 77-96면.

6) 김인경,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분단현실의 재현과 갈등 양상의 모색』, 『현대소설연구』 57호, 2014. 11, 267-293면.

7)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장해성의 『두만강』과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6집, 구보학회, 2017. 6, 517-542면.

8) 고인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상상 연구-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과 강희진의 『유령』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9집, 2012. 2, 141-169면. /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상상 연구-(바리데기)와 <리나>에 나타난 ‘탈국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2집, 2009. 8, 215-245면.

9) 김효석, 『경계의 보편성과 특수성 :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소설들을 중심으로』, 『다문

이 분단 현실에 대한 대응방식과 더불어 포스트모던 시대의 초국가, 초민족의 탈경계적 상상력을 드러낸다면 탈북자들의 정체성 탐색 노력을 주목한다. 이성희¹⁰⁾는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자발적 소통 불응과 적극적인 연대 불응을 통해 탈북자의 인정투쟁을 분석한다. 김세령¹¹⁾은 민족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탈북자’를 분석하면서 ‘탈북자 문제가 ‘경계인과 코즈모폴리턴, 타자와 소수자’로서 민족 차원의 분단과 통일,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디아스포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탈경계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이슈임을 분석한다. 박덕규¹²⁾는 탈북문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는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다른 하나는 국내에 미적응하고 있는 탈북자로 나누고, 디아스포라적 문제와 다문화 사회의 소외와 관련된 양상으로 분석한다. 황정아¹³⁾는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관계를 맺는 성격을 ‘미리 온 통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웃과 타자로서의 탈북자와의 상호주체성을 분석한다.

셋째로 김유경과 장해성 등 실제 탈북 체험 작가에 대한 연구 중 김효석¹⁴⁾은 증언과 고발문학으로서의 탈북서사를 고찰하면서 탈북자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방식을 분석한다. 이성희¹⁵⁾는 탈북여성이 탈북과정과 정착과정에서 경험한 상실감을 치유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서세립¹⁶⁾은

화콘텐츠연구』 2호, 2009. 10, 126-152면.

- 10) 이성희, 『탈북소설에 나타난 탈북자의 정체성 구현 방식 연구-호네트의 인정투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56, 2012. 12, 717-738면.
- 11) 김세령, 『탈북자 소재 한국 소설 연구-탈북을 통한 지향점과 ‘탈북자’의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3호, 2013. 7, 35-86면.
- 12)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제14권 제3호(통권 제35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12, 89-113면.
- 13) 황정아,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미리 온 통일’ : 『로기완을 만났다』와 『옥화』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4권 2호, 2015, 47-69면.
- 14) 김효석,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이문논집』 제57집, 2014. 3, 305-332면.
- 15)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탈북 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11, 1-21면.

김유경의 소설 연구를 통해 탈북자들의 정치적 소명 의식과 폭력적 제도의 상충 문제와 함께 사랑과 욕망 등의 내적 사유를 분석하고, 북한의 ‘장마당’ 경제에서부터 탈북 과정의 교환성과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에 대한 탐색을 분석한다. 연남경¹⁷⁾은 탈북 여성을 서발턴의 현재적 양상으로 판단하여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글쓰기의 가능성을 점검한다.

이상의 기존 연구에서 드러나듯 ‘탈북 소재 소설’ 연구는 남한에서 출판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면서 분단 체제 하의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개인의 정체성에서부터 초국경시대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을 매개로 이주와 난민, 인권 문제에 대해 논구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적이 없는 북한 소설에 드러난 탈북 소재 소설의 이질적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이 ‘탈북’을 바라보는 남북한 문학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이질화된 분단 체제의 모순적 현상을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작가동맹의 공식적인 기관지인 『조선문학』에 게재된 김하늘의 『들꽃의 서정』은 일종의 ‘수령형문학’으로서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현재적 시각과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소설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의 지도력을 예찬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성수에 따르면 김정은이 ‘미래를 지향하는 친근한 지도자’로서 ‘인민생활 향상’과 ‘청년 미래’ 담론 속에 ‘선군과 민생의 병진 담론’을 원심화하면서 청년 지도자의 욕망으로 ‘사회주의 낙원’을 실현하려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¹⁸⁾ 뿐만 아니라 ‘백두 혈통’의 3대 세습 담론 강화 속에

16) 서세립,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탈북자의 디아스포라 인식과 정치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2, 2017. 3, 81-104면. / 서세립,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6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2, 69-102면.

17) 연남경, 『탈북 여성 작가의 글쓰기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5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7. 4, 421-449면.

18) 김성수, 『김정은 시대 초의 북한문학 동향 : 2010~2012년 『조선문학』, 『문학신문』 분석을 중

‘김정일 애국주의의 추구, 최첨단 시대의 돌파, 긍정적 주인공들의 양심과 헌신의 목소리’ 등이 드러나면서¹⁹⁾ ‘당’을 중심으로 인민의 기억을 재현하는 정치적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²⁰⁾ 결과적으로 김정은 시대 소설의 특징은 2016년 제7차 당 대회 이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우며 ‘김정일 애국주의’를 실천담론으로 강조하면서²¹⁾, ‘사회주의 대가정’의 구조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형상화되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복지 담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²²⁾ 이렇게 보면, 2012년 이후 김정은 시대의 북한소설은 ‘김정일 애국주의’, 최첨단 시대 돌파, 만리마 시대(속도), 자강력 제일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등이 핵심 키워드로 활용되면서 수령형상문학을 위시로 사회주의 현실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함께 생산되고 있다.

2014년은 김정은이 2013년 12월 12일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직후의 시기라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공포 정치를 수행하는 철권 통치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할 문학적 텍스트가 등장할 필요가 제기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결국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독재적 지도자가 아니라 인민 사랑의 화신이라는 이미지를 착색시키기 위해 ‘수령형상문학 단편집의 기획’이 작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 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50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12. 31, 481-513면. / 김성수, 『‘선군’과 ‘민생’ 사이 : 김정은 시대 초(2012-2013) 북한의 ‘사회주의 현실’ 문학 비판』, 『민족문학사연구』 제53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12. 31, 410-440면. / 김성수, 『북한문학, 청년 지도자의 욕망 - 김정은 시대, 북한 문학의 동향과 전망』,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북한연구학회, 2014. 10, 259-277면.
- 19) 오태호, 『김정은 시대 북한단편소설의 향방 : 김정일 애국주의의 추구하고 최첨단시대의 돌파』, 『국제한인문학연구』 12집, 국제한인문학회, 2013. 8. 31, 161-195면.
- 20) 오창은, 『김정일 사후 북한소설에 나타난 ‘통치와 안전’의 작동 - 인민의 자기통치를 위한 기억과 재현의 정치』, 『통일인문학』 제57집, 건국대인문학연구원, 2014. 3, 285-310면.
- 21) 박태상, 『김정은 집권 3년, 북한소설문학의 특성 -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선문학』 발표작품을 대상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16집, 국제한인문학회, 2015. 8. 31, 53-91면.
- 22) 이선경, 『김정은 시대 소설에 나타나는 복지 담론의 의미: ‘사회주의 대가정’의 구조 변동과 ‘사람값’의 재배치』,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북한연구학회, 2017. 4, 253-264면.

‘탈북 여성’의 ‘재입북’ 문제를 형상화한 김하늘의 『들꽃의 서정』²³⁾은 조선작가동맹 기관지인 『조선문학』 2014년 1월호에 게재되어 ‘탈북’과 관련된 북한문학의 시각과 관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김성수²⁴⁾에 따르면 이 소설은 일종의 실화를 모티프로 한 소설로서 김정은의 ‘광폭정치, 인덕정치’를 체득한 내용을 강조한 ‘수령형상소설’에 해당한다. 북한 평론가인 김용부 역시 ‘수령의 위대성’에 방점을 찍어 평가를 진행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 것이다.〉

지난해 문학예술출판사에서는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작가들이 자기의 뜨거운 심장이 내뿜는 피방울을 충정의 붓대로 한점 한점 찍어 창작한 주옥같은 단편소설들을 묶어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을 내놓았다.

『불의 약속』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단편소설들을 묶은 첫 단편집이라는데서 또 사상예술성이 비상이 높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비할바없이 크다.²⁵⁾

김용부의 평론인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려내라는 ‘김정일의 교시’를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단편소설들을 묶은 첫 단편집”이자 “사상예술성이 비상이 높”은 작품집인 『불의 약속』(2014)에 게재되어 있다는 점

23) 김하늘, 『들꽃의 서정』,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103(2014)년 제1호(루계 제795호), 13-21면.

24) 김성수, 『청년 지도자의 신화 만들기-김정은 ‘수령형상 소설’ 비판』, 『대동문화연구』 제8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485-516면.

25) 김용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 -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에 대하여』, 『조선문학』, 2015년 2월호, 27면.

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 단편소설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소설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문학』 2014년 1호 표지에 실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1쪽)라는 모토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지시’인 “전당, 전군, 전민이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나가야 합니다.”(2쪽)가 목차 위에 글상자로 적시되고,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열쇠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것입니다.”(3쪽)라는 표현이 ‘김정은의 말씀’으로 적시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김정은 시대의 북한 소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방점이 문학적 형상화의 기본적 전제에 해당한다. 더불어 ‘김정일의 지시’ 속에 ‘당-군-민’의 삼위일체적 결속이 강조되며, ‘어머니=당’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을 동력화하는 것이 강성국가건설의 핵심임이 드러난다. 결국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 김정은 지도’를 중시하면서 ‘김정일 애국주의’²⁶⁾를 지향하는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 김하늘의 『들꽃의 서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탈북자’를 소재로 활용한 김정은 시대 수령형상문학의 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6) ‘김정일 애국주의’는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헌신한 김정일의 형상을 담론화하여 애국자의 전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결국 김정은 정권 초기의 ‘김정일 애국주의’란 김정일에 대한 애도와 현상을 표방하면서도, 김정일의 후계자이자 계승자로서 김정은의 미미한 지도력을 상쇄하려는 고육지책적인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1994년 김일성 사후 ‘김일성주의’가 재삼 강조되었듯 김정일 사후 김정은 시대의 체제 결속을 위해 ‘김정일 애국주의’가 재삼 강조된 것이다.(오테호, 김정은 시대 북한 단편소설의 향방-‘김정일 애국주의’의 추구와 ‘최첨단 시대’의 돌파, 『국제한인문학연구』, 국제한인문학회, 2013. 12, 161-195면.)

2. 김정은의 내적 갈등 - 상반된 두 여인의 형상

김하늘의 『들꽃의 서정』은 김정은이 탈북했다가 재입북하려는 ‘탈북 여성’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인민 사랑’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형상화한 작품에 해당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펼쳐온 “대원수님들의 광폭정치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 있으며, 이 작품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광폭정치의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²⁷⁾ 애국과 애민 정신을 담은 김정일의 지도가 ‘광폭정치의 본질’이며 그것을 김정은이 체화하여 실천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은 한밤중에 김정은이 두 개의 문건을 놓고 고심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수령형상’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대목이다. 즉 전지전능한 만능의 해결사로서 수령이 형상화될 수 있을 뿐 수령의 고심이 형상화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수령형상문학’이었다면 고위 당 간부의 고민이 우선 제기되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수령이 제시하는 것이 수령 형상의 기본이자 원칙에 해당한다.²⁸⁾ 두 개의 문건 자체는 하나는 인민군총참모부에서 올린 문건이고, 다른 하나는 당 중앙위원회의 한 부서에서 올린 문건이다. 군에서 올린 문건은 3년 전 총참모부로 올라왔던 사단장급 군관이 1년 전 여름 자신의 만아들이 폭우 속에서 어린 학생들을 구출하다가 희생된 부대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문건이다. 사단장으로 적임자라는 내용인데다가, 그의 아내도 남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는 생각을 전하자 김정은은 헌신적인 부부의 희생정신에 마음이 쓰인다. 27년간을 최전방에서 고생하며 살

27) 김용부, 앞의 글, 28면.

28) 윤기덕에 의하면 ‘수령형상의 본질’은 ‘수령의 위대성과 고결성, 인간적 풍모의 예술적 형상화’를 통해 인민을 계몽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숭고한 풍모를 지닌 영도자로서 형상화해야 한다.(윤기덕,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155-157면.)

다가 평양에 올라왔던 아내가 편히 쉬지도 못한 채 다시 이삿짐을 싸들고 최전선으로 남편을 따라나서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옆에 놓인 마지막문건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몇해 전에 몇푼의 돈을 바라고 이웃나라에 갔다가 남조선에까지 흘러갔던 녀인문제였다. 이제 와서 다시 조국에 받아달라고 남조선을 탈출하여 중국 심양의 우리 나라 대표부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두 문건에 너무도 상반되는 녀인들이 있었다. 그 녀인들이 지금 평범하고도 범상치 않은 자기들의 삶을 문건에 씌어진 끝줄들로 이야기하고 있다. 참된 군관의 안해는 짝막한 한문장으로, 일시적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갔던 녀인은 집안래력과 살아온 경력, 국경을 넘어가게 된 동기와 그 후의 굴욕적인 생활, 다시 조국의 문을 두드리게 되기까지의 긴 이야기로...²⁹⁾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마지막 문건에는 “몇해전에 몇푼의 돈을 바라고 이웃나라에 갔다가 남조선에까지 흘러갔던 녀인문제”가 담겨 있다. “이제 와서 다시 조국에 받아달라고 남조선을 탈출하여 중국 심양의 우리 나라 대표부 문을 두드렸다”는 내용을 보면서 김정은이 두 문건에 대조적으로 상반된 여성이 기재되어 있음을 절감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참된 군관의 안해는 짝막한 한 문장”이지만 “남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적혀 있고, “일시적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갔던 녀인은 집안래력과 살아온 경력, 국경을 넘어가게 된 동기와 그 후의 굴욕적인 생활, 다시 조국의 문을 두드리게 되기까지의 긴 이야기”(13쪽)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두 대조적인 모성상이 북한 인민의 ‘롤 모델’과 ‘반면 교사’의 양극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탈북 여성의 굴욕적 삶의 내력이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여느 남한의 ‘탈북자 소설’과는 다르다. 이를 테면 황석영

29) 김하늘, 앞의 글, 13면.

의 『바리데기』나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의 경우처럼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기아와 난민의 실상은 남한 작가의 소설에서는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설명되거나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당 문학으로서 사회주의 체제 문학을 지향하는 북한 문학의 입장에서 일종의 ‘김정일 애국주의’와 김정은의 인민 사랑이라는 결과론적 해결을 강조하기 위해 탈북 여성의 고난과 시련 등 북한 사회의 음화와 연관되어 서사화하기 어려운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입사증이 발급된 평양의 창전거리의 불야경을 보면서 김정은은 “새집에서 누리게 될 희한한 생활”을 누릴 주인이 누구일 것인지를 고민한다. 초고층건물 건설장을 현지지도하던 김정은은 “고생을 많이한 우리 인민들을 다 이런 집에서 살게 하자는 것이 바로 나의 리상”이라고 말하던 부친 ‘김정일의 말씀’을 회상한다. 그리고는 그 뜻에 따라 “이 집에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땀을 많이 흘린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근로자들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양의 뉴타운’으로서의 초고층건물이 소위 말하는 조국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근로인민대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소명을 피력하는 것이다.

새 거리의 입사증을 받아안은 사람들이 행복의 이사짐을 꾸리고있을 이밤 총참모부사택의 어느 한 집에서는 군관의 안해가 남편을 기다리며 조용히 이사짐을 싸고있을 것이다. / 어떤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가? 우리 장군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심혼이 깃들어있는 저 새 거리에서는?... / 그날 새 거리 건설장에서 누구에게라없이 하시었던 그 물음이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자신에게로 되돌아온것만 같이 여겨지시였다.³⁰⁾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김정은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계승하는 실천적 수행자로서의 지위가 강조된다. 즉 “우리 장군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30) 김하늘, 앞의 글, 14면.

심혼”이 담겨 있는 평양의 신도시에는 조국을 위해 고생한 인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그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보고된 탈북 여성 관련 문건 내용에는 “평양에서 대학교원을 하는 이들을 비롯하여 그 녀인의 가족, 친척들도 모두 그를 만나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탈북 여인의 재입북 의지와 함께 가족과 친지들의 만남 거부가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서 김정은은 내적 갈등으로서의 ‘괴로움’에 젖어드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운 한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수치를 가져다준 다른 한 어머니”가 여전히 대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름답고 강의한 녀인에게는 무엇을 주고 치욕을 안고있는 녀인에게는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아름답고 강의한 녀인”과 “치욕을 안고 있는 녀인”의 대비 속에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존재로 김정은이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김정은 시대의 ‘수령형상문학’에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무오류적 지도자의 결심이나 행동이 아니라 다양한 내적 갈등을 표출하는 내용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도자상의 형상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3. 광폭정치의 본질과 현상 - 배반과 용서 사이

김정일 시대의 ‘광폭정치’³¹⁾는 ‘통 큰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풍모를

31) ‘광폭정치(廣幅政治)’란 김정일이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 크게’ 지도한다는 통치방식을 이르는 용어로서, 1993년 1월 28일 인덕정치(仁德政治)와 함께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인덕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주의 만세’ 제하의 논설에서 “인민을 위한 정치는 그릇이 커야한다”, “노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치의 폭이 넓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방식을 광폭정치로 표현한 바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3)

강조하는 용어지만,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져 본질적으로 계승되고 새로이 범주화되어 활용된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문성은 해당 부문 일군들과 심중히 토론했다면서 탈북 여성에 대한 불신을 토로한다. “한번 배반했던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배반할수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지난 시기 그런 실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안광에는 어두운 그늘이 스쳐간다. 이어서 “지난날을 뒤우치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사람을 적들에게 되밀어보내지는 거”냐면서 “받아는 들이되 믿지는 못하겠다?... 무엇을 믿지 못하겠다는거요? 그래 믿지 않을바엔 왜 받아들인단 말이요?”라고 되묻는다. 김정은은 탈북 여성의 배반 행동과 불신 사례에 대해 반문하면서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 방법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전에도 썩여있지만 그 여성의 가족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을 많이 받아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전쟁때 월남했지만 어머니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꽃피웠고 더욱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여성의 어머니에게 일흔뉘살생일상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집안이어서 당에서는 그 여성의 아들을 평양음악대학의 교단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 남다른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고도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 배신의 길로 갔으니... 지금은 그의 가족들까지도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³²⁾

인용문처럼 리문성은 ‘탈북 여성’의 삶을 요약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여성’임을 강조한다.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김정일이 ‘탈북 여성의 어머니’에게 칠순 생일상을 보내줄 정도로 은덕을 베풀었고, 당에서도 ‘탈북 여성의 아들’에게 교수 자리를 만들어 주었을 정도로 ‘남다른 사랑과 배려’를 받았음에도 ‘탈북 여성’은 ‘조국의 시련’ 시기에 ‘배반의 길’로 갔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여성의 가족

32) 김하늘, 앞의 글, 17면.

역시 만남을 거부하고 있음을 피력한다.

하지만 리문성의 의견에 김정은은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요즘 무리해서 몹시 피곤한 것 같으니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하루 푹 쉬 라면서, 리문성에게 최전선으로 향하게 된 사단장급 군관인 류철문 동무의 집에 찾아가 옛 전우들끼리 회포를 풀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은 다시 고민한다. 해당 일군들의 말처럼 탈북여성의 행동이 “명백히 배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생활상 난관”이지만 “아버지를 찾아 국경을 넘”었다는 점에서 그 여성의 배반 행위에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김정은은 문건을 만들어올린 일군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떠올리며, 그들이 모두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일수록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려 하지 않고 타협하려 하지 않는 법”이기에 “믿을수 없습니다, 믿어선 안됩니다”라는 글줄들의 밑바닥에서는 “용서할수 없습니다!”라는 일군들이 내비치는 불관용의 외침이 분명히 감지된다. 이렇듯 고민하고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지도자의 모습은 김정은 시대 수령형상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판단된다.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에는 무갈등론의 표방과 개진 속에 전지전능한 존재로 ‘수령의 형상’이 그려졌지만, 김정은의 경우 심리적 갈등과 변민을 드러내면서 보다 인간적이고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내포한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고민이 깊어가던 그때 다시 들어선 리문성이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동지의 넓은 도량과 인덕을 다 깨닫지 못하고 너무 편협”했다면 서 문건을 고쳐 올리겠다고 전한다. “위대한 장군님”인 김정일이 “벌써 오래전에 우리 당의 정치는 광폭정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을 그냥 내치려고 했다면 자신의 오만에 대한 자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김정은은 ‘광폭정치’가 허물을 탓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관대성

도 아닐 뿐만 아니라, 리문성이 당의 ‘광폭정치의 본질’과 김정일의 ‘인덕 정치의 근본’을 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를 회상한다. 그러면서 생전에 “일시적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간 우리 사람들을 유괴, 랍치하여 끌어가던 남조선괴뢰들, <탈북자>로 불리운 그 사람들이 남쪽에서 당하는 온갖 치욕과 고통”을 언급하던 김정일이 전선길에 또 나서려고 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김정일의 생전 분노를 회상하면서 “남조선괴뢰들”에 의해 “유괴, 랍치”되어 끌려간 존재들을 ‘탈북자’로 호명하는 현실이 북한문학 사상 처음으로 적시되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얼리즘적 기율에 해당한다.

옷자락을 부여잡는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서는 마치 불을 토하시는 듯 했다. / “나의 피와 같고 살점과도 같은 인민을 원수들이 때내자고 하는데 가만 있겠는가! 동무들도 문건을 봤지? 그렇게 끌어가다가 노예가 아니면 쓰레기로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정을 쏟은 인민이라고 놈들이 감히 때여낼수 있다고, 감히?!” / 으스러지게 틀어쥐신 주먹에서 분노가 푸들푸들 튀고 서슬푸른 안광에서 불이 펄펄 일었다.³³⁾

인용문에서처럼 김정일은 생전에 ‘자신의 피와 살점’과 같은 인민을 “원수들이 때내”려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며 감정을 폭발한다. 특히 그렇게 끌려가 ‘노예나 쓰레기’ 같은 존재로 멩어를 쓰고 살아가는 ‘탈북민’의 비참한 모습을 참을 수 없어 한다. 더구나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아끼면서 “정을 쏟은 인민”임을 강조하면서 분노를 폭발하는 것으로 회상된다. 김정일은 ‘탈북자의 배신’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 이후 남한에서 ‘노예나 쓰레기’처럼 생활하는 ‘탈북자의 치욕과 고통’에 분노하는 ‘인민 사랑의 통 큰 지도자’로 그려지는 것이다. 북한 체제의 입장에

33) 김하늘, 앞의 글, 19면.

서 ‘자신의 피와 살과 같은 ‘자신의 인민’이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김정일의 말과 행동은 ‘지도자의 피와 살=인민’이라는 자의식 속에 지도자와 인민을 동일시하는 ‘김정일의 인민 사랑’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자와 인민의 동일시적 태도는 인민을 하위 주체이자 자신의 부속물로 여기는 독선적이고 우월적인 인식이라는 점에서 ‘짐이 곧 국가’라는 전근대적 왕조국가의 한계상황적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김정일은 “내 고생으로 인민들이 잘살수만 있다면!”이라는 생각 속에 “불같은 한생”을 산 존재로 인식된다. 작고하기 하루 전인 2011년 12월 16일에도 그 한 마디를 뇌이며 현지 지도의 길에 올랐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광폭정치’가 사람들의 허물을 닷하지 않고 모두 다 품에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신의 새로운 견해를 추가한다.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요. 누구보다 그 허물을 가슴아파하며 하루빨리 씻어주자고 더 정을 쏟아붓는 것이 우리 당의 광폭정치요. 그 녀성이 남조선에서 얼마나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왔는가, 공화국의 품속에서 나서자란 그 녀인으로서는 난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고생을 겪었을 것이 아닌가. 나는 그게 더 가슴아픕니다. 제 자식이 집을 나갔다가 인간이하의 모멸과 고생을 겪었다고 보면... 어머니라면...³⁴⁾

인용문에서처럼 김정은은 탈북자의 허물을 신속하게 씻어주기 위해 온 정을 쏟아붓는 것이 ‘광폭정치’³⁵⁾임을 강조한다. 탈북 행위에 대한 비난이

34) 김하늘, 앞의 글, 19면.

35) 김용부는 이 작품이 “조국을 배반하였다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속에서 평양에 자리를 잡는 한 녀인과 평양을 떠나 조국수호전의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인민군군관의 형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광폭정치의 새로운 본질적의미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김용부, 앞의 글, 31면.) 김정일 애국주의를 계승하면서도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로서 새롭고 본질적인 의미를 강화하는 혁신적 지도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나 배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남조선에서의 멸시와 천대'를 보듬어주면서 당이 어머니처럼 '탈북자의 모멸과 고생'을 품어주자는 것이다. 김정은은 리문성에게 다가가면서 “더 뜨겁게 품어주고 지금까지 누려왔던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해서 치욕의 상처를 깨끗이 가시게 해주고싶”다면서 치욕과 상처를 “흔적도 없이” 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탈북 여인을 믿자면서 “일시적인 동요와 방황은 있었어도” 그 여인이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품에서 떼어놓으신 적 없는 인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김정은의 결정은 일종의 심신 미약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려는 헌신적인 의사의 처방을 연상케 한다.

리문성은 눈물이 어리면서도 “그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가닿도록 조직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한다. 그 여인을 비행기에 태워오겠으며,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데리고 내일 리문성 본인이 비행장에 직접 나가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김정은이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미소를 짓는다. 그러면서 비행장에 나갈 때 꽃송이도 들고 나가라고 지시한다. “조국과 고향과 그리고 귀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그런 꽃송이”가 천백 마디 말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결국 김정은의 ‘광폭정치’란 당의 모성적 포용력과 함께 상처의 조속한 치유를 위해 인민에 대한 무한 사랑을 실천하는 지도자의 배려를 표상하는 셈이다.

4. 인민에 대한 신심(信心) - 들꽃과 모성의 동일시

김정은은 해돋이 무렵에 초여름의 산속에서 생신한 숲의 향기가 느껴지자 산보를 하면서 생전에 김정일이 보여주었던 “조국애의 강렬한 열정”을 회상하면서 “목메인 그리움”을 느낀다. 그리고 소박하고 수수하게 핀 들꽃들을 보면서 사단장급 군관의 아내 얼굴을 떠올린다. 작품 말미에서

도 김정은은 들꽃들을 상기하면서 그 꽃송이들이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전선의 녀인들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상상한다. “모진 시련과 고생속에서도 변함없이 조국을 받들고 병사들의 어머니로 억세게 살아온 그들”이 “한없이 소중하게 안겨오는 모습들”로 연상되기 때문이다.

들꽃, 이름모를 꽃들… 찬바람에 시달리고 눈비에 젖고 가꾸어주는 사람 따르없어도 엄혹한 계절을 이겨낸 수많은 사연들을 조용히 묻어두고 그곳이 어디든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는 꽃들, 소박하고 강의한, 그래서 더 유정한 꽃들이다.³⁶⁾

김정일이 북한의 인민을 자신의 피와 살처럼 애지중지했던 지도자였음을 알기에 김정은은 김정일의 인민 사랑을 본받아 전선으로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을 들뜬에 피어난 “이름모를 꽃들”로 치환한다. 들꽃들은 ‘소박하고 강의해서 더 유정한 존재의 꽃들이 되어 북한 사회의 모성적 이미지로 치환됨과 동시에 헌신적인 어머니 당이 배려하는 여성들로 환유되는 셈이다.

이후 김정은은 류철문 대좌에게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고 조선인민군 제125사 사단장으로 임명한다는 명령을 전달한다. 그리고 류철문의 아내의 모습이 “비바람사나운 전호가에 억세게 뿌리박고 피어있는 한송이 들꽃처럼 유정하게 안겨”오는 것을 상상한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평양 비행장에서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녀인이 고향의 향기 그윽한 들꽃을 받아 들고 흐느낄 때 전선동부로 달리는 군용차안에서는 류철문과 그의 안해가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을 간절히 축원하며 멀어져가는 평양하늘을 우러”르는 것으로 연상한다. 결국 김정은의 올바른 지도로 상반된 길을 걸어온 대조적인 두 여성이 ‘아름다운 들꽃’의 이미지 속에서 ‘인민의 일원’으로 함께 수용되는 것이다.

36) 김하늘, 앞의 글, 20면.

김정은은 탈북 여성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국내외 기자들 앞에 나선 녹화물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그려진다. 실제로 탈북여성의 재입북 이야기는 2012년 6월에 발생한 실화이다. 이 재입북 실화를 통해 김정은은 결국 인민 사랑의 지도자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³⁷⁾ 김정은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책임, 참된 인권에 대한 정의를 온 세계가 뜨겁게 새겨 보는 순간”을 응시하며, “불신과 리간, 간계와 모략으로 이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적들을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자부한다. 반대자들의 논리를 ‘불신과 이간질, 간계와 모략의 세력으로 묶는 반면에 북한 체제가 ‘사랑과 믿음, 정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도덕적 우월의 사회임을 강조하는 셈이다. 더구나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그렇게 정을 쏟아부어주신 인민인데 달리아 살수 없지.”라면서 인민 사랑을 위해 헌신했던 김정일에 대한 그리움을 표명하면서 ‘김정일 애국주의’를 계승한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산자드락에 점점이 피어있는 전선길의 이름모를 들꽃들에 다시 눈길을 주시였다. 그 들꽃들이 안고있는 만단사연이 향긋한 향기로 가슴에 흘러드는 듯... / 그이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그리시였다.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그 녀인도 이 땅에 뿌리내린 한떨기 꽃으로 다시 피우고싶으신 마음이었다. 그 녀인도 장군님 맡기고가신 우리 인민의 한사람이 아닌가!...³⁸⁾

37) ‘탈북자의 재입북’ 문제에 대해, 남한에서는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적응 문제이기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는 논자도 있으며(윤여상, 『포커스 : 탈북자재입북 현상과 현행 탈북자 관리의 문제점 ; 탈북자지원사업 지방정부,민간단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통일한국』 351집, 평화문제연구소, 2013, 38-39면.), 탈북 여성의 재입북을 비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파악할 것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김형덕, 『탈북자 재입북, 남북 소통의 단초가 될 수도』, 『디펜스+』, 한겨레, 2012. 08. 30.) 이렇듯 탈북자의 재입북 문제는 탈북자를 바라보는 남한 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스펙트럼을 보여줌과 동시에 분단 체제의 모순을 상징화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38) 김하늘, 앞의 책, 21면.

김정은은 원래 지방에서 살았던 ‘탈북 여성’을 평양에 올라와 새로운 신도시에서 생활하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작품 말미에는 저녁노을이 불타는 산악도로를 달리면서 들꽃들에 눈길을 보낸다. 그리고는 미소를 띠면서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그 녀인도 이 땅에 뿌리내린 한 떨기 꽃으로 다시 피우고싶으신 마음”을 먹는다. 그 여인도 김정일이 맡기고 간 ‘인민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바라노라 나의 조국아 / 그대의 넓은 대지에 / 그 언제나 꽃들이 피고 / 황금이삭 설레이기를”이라는 가사의 노래를 들으며, 사회주의 문명국에 풍요로움이 넘쳐나기를 우회적으로 기원하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김정은 시대의 ‘탈북자 소설’은 배신과 믿음, 분노와 사랑, 탈북과 귀국 등의 이항대립적 요소 속에서 김정일의 광폭정치와 인민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텍스트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탈북의 동기나 지난한 시련의 과정이 지닌 세목, 탈북 이후의 삶의 궤적을 생략한 채 ‘재입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북한문학의 당문학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탈북 여성 역시 인민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기에 ‘인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김정은의 포용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수령형상문학’의 특성을 보여준다. 결국 북한문학에서 ‘탈북 소재 소설’은 남한 문학과는 다르게 지도자의 폭넓은 사랑과 믿음을 앞세우는 수령형상문학의 특성과 함께 북한 체제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당문학의 지향을 보여주면서 목적의식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2014년 1월호에 발표된 북한의 단편소설인 김하늘의 『들꽃의 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최초이자 유일하게 ‘탈북자’를 소재로 다룬 수령형상문학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남한에서 발표된 ‘탈북문학’과는

상당히 이질적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의 일곱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첫째 김정일 애국주의의 표방 속에 김정일의 인민 사랑 정신을 전면에 내세운다. 둘째 김정은을 김정일의 광폭정치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실현하는 실천적 수행자로 형상화한다. 셋째 김정은을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지도자로 형상화한다. 넷째 들꽃을 어머니로 환유하며 인민과 당의 관계를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에 빗대고 있다. 다섯째 김정은이 무갈등론이나 무오류적 수령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에 능수능란한 수평적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인민 사랑의 지도자임이 드러난다. 여섯째 ‘탈북자’라는 호명 속에서도 탈북의 동기나 과정은 소략화되어 있지만, ‘일시적인 고난과 시련’을 피상적으로나마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일곱째 배반과 용서, 불신과 신뢰, 적대감과 친밀감, 증오와 사랑 등의 이항대립적 대비가 여전히 주요 서사 장치로 활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김정은 시대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특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최근 한국문학의 영토에 자리잡고 있는 ‘탈북문학’은 남한의 기성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탈북자 작가의 수기나 소설에 이르기까지 ‘탈경계의 상상력’ 속에서 전세계적인 이슈에 해당하는 난민이나 이주의 문제와 함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국민 국가의 경계를 다시 사유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 문학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사회와 탈북자의 인권 문제, 여성 문제, 정치범 수용소,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탈북 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주제의식 등을 보여주면서 분단현실의 특수성과 함께 소수자 인권 문제라는 보편성을 함께 주목하게 한다. 2019년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위기 속에서 북한문학에 대한 관심과 남북한 문학의 비교 분석은 더욱 중요한 대화적 국면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조선작가동맹’의 공식적인 기관지인 『조선문학』에 게재된 ‘수령형상문학’ 작품인 김하늘의 「들꽃의 서정」이 김정일 애국주의의 표방 속에

김정일의 인민 사랑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김정은이 ‘광폭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있으며, 조국을 배반했던 탈북 여성을 북한 인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 있는 ‘인민 사랑의 지도자’임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임을 분석하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김정은의 심리적 번민과 갈등이 작품 곳곳에서 서사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 수령형상문학의 문학적 새로움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움은 2018년 이래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도정 속에서 남북한 북한의 접이지대를 확장하면서 리얼리즘적 외연으로서의 공통분모를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2018년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남북한의 문학적 접촉을 통한 이질성 극복의 가능성 타진 역시 현재진행형으로 필요한 작업임을 확인하게 한다.

| 참고문헌 |

1. 참고자료

김하늘, 『들꽃의 서정』,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103(2014)년 제1호(루계 제795호).

2. 참고논문

고인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연구-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과 강희진의 『유령』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9집, 2012. 2, 141-169면.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바리데기)와 <리나>에 나타난 ‘탈국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2집, 2009. 8, 215-245면.

김성수, 『김정은 시대 초의 북한문학 동향 : 2010~2012년 『조선문학』, 『문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50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12. 31, 481-513면.

김성수, 『‘선군’과 ‘민생’ 사이 : 김정은 시대 초(2012~2013) 북한의 ‘사회주의 현실’ 문학 비판』, 『민족문학사연구』 제53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12. 31, 410-440면.

김성수, 『북한문학, 청년 지도자의 욕망 - 김정은 시대, 북한 문학의 동향과 전망』,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북한연구학회, 2014. 10, 259-277면.

김성수, 『청년 지도자의 신화 만들기-김정은 ‘수령형상 소설’ 비판』, 『대동문화연구』 제8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485-516면.

김세령, 『탈북자 소재 한국 소설 연구-탈북을 통한 지향점과 ‘탈북자’의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3호, 2013. 7, 35-86면.

김용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 -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에 대하여』, 『조선문학』, 2015년 2월호, 27-31면.

김인경,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분단현실의 재현과 갈등 양상의 모색』, 『현대소설연구』 57호, 2014. 11, 267-293면.

김형덕, 『탈북자 재입북, 남북 소통의 단초가 될 수도』, 『디펜스+』, 한겨레, 2012. 08. 30.

김효석, 『‘경계’의 보편성과 특수성 :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소설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호, 2009. 10, 126-152면.

김효석,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57집, 2014. 3, 305-332면.

-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제14권 제3호(통권 제35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12, 89-113면.
- 박태상, 『김정은 집권 3년, 북한소설문학의 특성 -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선문학』 발표작품을 대상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16집, 국제한인문학회, 2015. 8. 31, 53-91면.
- 서세림,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탈북자의 디아스포라 인식과 정치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2, 2017. 3, 81-104면.
- 서세림,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6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2, 69-102면.
- 연남경, 『탈북 여성 작가의 글쓰기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5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7. 4, 421-449면.
- 오창은, 『김정일 사후 북한소설에 나타난 ‘통치와 안전’의 작동 - 인민의 자기통치를 위한 기억과 재현의 정치』, 『통일인문학』 제57집, 건국대인문학연구원, 2014. 3, 285-310면.
- 오태호, 『김정은 시대 북한단편소설의 향방 : 김정일 애국주의의 추구와 최첨단시대의 돌파』, 『국제한인문학연구』 12집, 국제한인문학회, 2013. 8. 31, 161-195면.
-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 윤여상, 『포커스 : 탈북자재입북 현상과 현행 탈북자 관리의 문제점 ; 탈북자지원사업 지방정부, 민간단체 중심으로 전환돼야』, 『통일한국』 351집, 평화문제연구소, 2013, 38-39면.
- 이선경, 『김정은 시대 소설에 나타나는 복지 담론의 의미·사회주의 대가정』의 구조 변동과 ‘사람값’의 재배치』,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북한연구학회, 2017. 4, 253-264면.
-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박덕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1집, 2009. 4, 261-288면.
- 이성희, 『탈북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남한 정착과정의 타자정체성연구-이대환의 『큰돈과 큰돈』과 정도상의 『절레꽃』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3. 6, 77-96면.
- 이성희, 『탈북소설에 나타난 탈북자의 정체성 구현 방식 연구-호네트의 인정투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56, 2012. 12, 717-738면.
-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탈북 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11, 1-21면.
-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장해성의 『두만강』과 김유경의 『청

춘연가』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6집, 구보학회, 2017. 6, 517-542면.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정도상의 『찹레꽃』, 이대환의 『큰돈과 큰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4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12, 377-396면.

황정아,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미리 온 통일' : 『로기완을 만났다』와 『옥화』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4권 2호, 2015, 47-69면.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Kim Jung Eun's Leader Shaping’ Short Story Using ‘North Korean Defectors’

—Centered on ‘Lyricism of wildflowers」(2014. 1) of
Kim Ha-neol

Oh Tae-ho

This paper specifically analyzed the aspect of ‘North Korean novels’ in North Korea centering on ‘Lyricism of wildflowers」(2014. 1) of Kim Ha-neol published in {Joseon Literature}. In this work, the expression “North Korean refugees” appears for the first time in North Korean novels. In particular, North Korea's position is revealed, focusing on the issue of returning to North Korean women, such as “betrayal and forgiveness, wound and healing, love and faith.” In addition, this work is also included in the first book of short stories of Kim Jong Eun as a “grateful leader”.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a work that represents the present of the system-oriented North Korean literature.

Studies on “novels of North Korean defectors” have been conducted mainly on works published in South Korea. It focuses on the issue of North Korean society under the division system, and discusses issues of migration, refugees and human rights through diaspora imagination from individual identity to transcendental age.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heterogeneity of novels in North Korean short stories. Thus, this work shows that Kim Jong Eun is a leader who inherits and practices ‘people

love spirit’ of Kim Jong Il in Kim Jong Il patriotism. Kim Jung Eun is penetrating the essence of ‘broad politics’. Among them, accepting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betrayed their homeland as members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y are embodied as “tolerant leaders of the people.”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e fact that Kim Jong Eun's psychological distress and conflict dominate the center of narratives throughout his work, revealing the literary novelty of Kim Jong Eun's age ‘Leader shape literature’.

The psychological distress and conflict that are revealed in ‘Leader shape literature’ correspond to an important device of realistic narrative. It is a meaningful point in that North Korea's point of North and South Korea extends the region and confirms common denominator as realistic outward appearance. Moreover, as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American summit are held in 2018, the atmosphere of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continuing. Overcoming the heterogeneity through literary contact between the two Koreas will also confirm that this is a necessary work for the present.

Key words: Kim Jung Eun era North Korean literature, North Korean refugees, defector, 『Lyricism of wildflowers』 of Kim Ha-neol, newness in North Korean literature, broad politics, Kim Jong Il patriotism, Leader shape literature

투 고 일: 2019년 8월 9일

심 사 일: 2019년 8월 19일-9월 7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2019년 9월 26일